

萬般改革에 一點新을 絶叫하노라

晚 悟 生

窮律이 已盡하니 陽辰이 初動이라 帳裡의 梅花는 香夢을 方吐하고 宮中에 管笳는 繡線에 時添하니 於焉 昭昭和二年의 新日月을 맞게 되엿도다 呀! 天道가 日變하니 人事는 隨遷이라 物을 攪하고 時를 對함에 無量한 感懷가 油然而 發生하도다 噫! 我佛敎가 寺法 頒布以來로 일어나 한變遷이 잇섯는가? 暴政下의 齷齪한 羈絆을 解脫시키고 鍾路大街에 步履가 自由이며 深山裡의 鬱鬱한 遺跡을 芟여나서 都市中央에 布敎가 任意이다 甚至於 梵服이 洋服으로 短髮이 層髮로 形色의 新面目을 見하겠스나 오죽 一點의 必要改良은 着手가 尙遲하니 卽은 房머리에 拈花室三字看板의 撤去이다 本看板이 이곳으로 決定된 것을 考究하면 그 原因은 이러할 것이다 釋尊入滅後 正法一千年間은 山巔水涯와 樹下塚間이 모다 佛弟子의 棲息經行處이라 草昧時代의 淳朴을 자랑하엿을 생각나 像季已遷으로 人根은 漸次 微劣하고 物質文明은 駸駸焉 進展되는 同時 一類病比丘를 爲하야 伽藍을 建設

하게 되엿다 그 順序는 언더한가 佛陀를 奉安하는 法殿을 先祀하고 그 左右或은 前面으로 一般比丘의 共同宿泊인 卽은 房이라는 것을 次建하게 되엿다 그리고 보니 道具와 寢所가 一處이라 할 것이 트면 複雜의 嫌이 업지 안을으로 大房의 四分一假量을 區劃하야 窓壁으로 界限을 劃定하고 持道房이라 名稱하니 卽法侶의 道具를 受持한다 는 表示이다 또 다시 持道房의 三四坪을 分割하야 此를 釋尊의 拈花示衆하는 勝機을 代表한다 는 意味로 拈花室이라 名稱하고 或은 壽室 祖室 祖殿等의 卽第二法堂이라는 名詞를 冠하야 佛家에 特殊한 禮遇를 加한 後德行이 圓滿하고 學識이 豐富한 者를 敎授師로 選擇하야 그 房에 잇게 하고 諸方學人으로 虛來實歸케 하엿다니 支那의 方丈和尙日本의 大僧正이 卽은 그 地位라 할 것이 다 其時로 말을 하면 所謂 房이라 고는 獨一無二한 外訪에 優遇로 看做치 안을 수 업스나 中古以來로 一般大衆의 外財蓄積이 잇는 同時 徒弟 養成의 區分이 生김으로 부터 一處에 同住함은

拘碍가 不辭하다 하야 大房의 連繫으로 私宅을 別構하고 行住坐臥에 所欲을 從心케 하엿다 今日 所謂 辦道房이라 는 것이 그것이다 冬溫而夏清하고 飢來食困來眠에 何往而不適하라 그러니 拈花室의 位置는 卽은 卽은 房머리에 卽은 溫突制度임을 서라 春秋兩節은 何等의 缺點이 적다 하겠스나 此는 放足時期이라 嚴重할 것이 別無이고 오죽 學人 提接時間이 冬夏安居卽은 極寒極熱時를 利用함에 참으로 堪忍키어려울 것이 枚擧不能이라 하노라

되지 못하엿스나 이 불속에 穩眠은 千萬夢外이다 或은 講師地位에 잇거 紛紜한 外境을 冷眼觀하고 經敎에 나潛心하라는 制度이라 는 지모로 겠스나 外境은 새로 對象인 經典外저 冷觀하게 되엿스나 언더하라 이런 말을 記抄하리 하니 三十年前 京山客僧의 이야기 卽은 此를 紹介하면

爲先夏期로 말을 하면 火輪이 輾空에 汗流如漿이라 人間何處에 層水을 徧踏할고 할時期이지 마는 後面及左右는 針孔의 風을 通할곳이 全히 업고 오죽 衆衆으로 向한一隻門을 열고 안저스니 袈裟長衫下에 五內가 焦欲死이지 마는 그 때 도 炊事場의 三時造飯의 火種은 謝絶할 수 업는 形便이다 다음 冬期는 언더한가? 이는 夏期의 正反對로 서서서 精神을 차릴 수 업는 形便이다 炊事場으로 부터 큰房敎十間의 遠距離를 經由함으로 溫突의 德은 尙矣絶望이고 其他 火爐等의 禦寒具도 업는 境遇인 즉 兩手를 烘을 불고 坐不安席이 됨에 房內散步로 卽은 時間을 經過할 다름이다 저! 日本에는 山田富士가 잇지 마는 우리 檀城에 講師일사록 赤食如洗한 寒士이 기세문에 寢具까지

「京山各寺의 三冬客僧은 참말할 수 업습되다 夕齋後 밤이 되면 主僧들은 戒과 衾房에 가서 자게 되고 磬聲 비인 큰房에 다 木枕한 개만 던져 주나다 卽은 木枕을 도두배고 한구석에 누엇스면 冷氣가 次次掩襲해서 骨髓에서 무치니 할 수 업서 일어안습나다 卽은 木枕을 업스면 그만일어성나다 또 못견디면 窓다갓다합니 다 卽은 長衫을 입습나다 鉢囊을 질며 집나다 對面을 열며 성나다 下板에서 上板까지 卓子 御間 서서 房內精進으로 限八十里를 行코보던 그 東方이 卽은 此를 記하노라」

다 고! 그러니까, 이 拈花室이라는 데 도여름에는 蒸死(蒸死) 겨울에는 僵死(僵死)라 하야 名稱은 近似하지 마는 同伴寢婦가 아니 고는 그 서를 모를 것이 다 언더 冬夏에 不便이 잇다 하라 正面에는 佛像을 奉安하고

다 고! 그러니까, 이 拈花室이라는 데 도여름에는 蒸死(蒸死) 겨울에는 僵死(僵死)라 하야 名稱은 近似하지 마는 同伴寢婦가 아니 고는 그 서를 모를 것이 다 언더 冬夏에 不便이 잇다 하라 正面에는 佛像을 奉安하고

左右로 經典을 모으스나 內衣를 가라입는다면 洗面器을 出入할에 偏處가 잇서야 지요 正講主와 學人의 道具를 弄다던가 微恙이 잇서 暫時 休養을 할것과 트린머릿방이라고 잇서야 되지만 옛는가 舊時代와 가차 因漢이 드려와서 一雙門을 여러 재치고이 놓할것과 트린 二單躲避不得으로애 一쪽을 하나씩이 옮기다 할것이다 舊時代이기로 그런 樞厄의 所聞을 잘 못지 못하였스나 萬一事實이 잇다 할것과 트린 一雙門은 耶一路 涅槃門이라 하면 相當할것이다 前記 不便點에 對하야 속모르는 親舊는 이리한 말로 일러 준다 只今 拈花室主人이 住持下의 法務支配를 받든 中 舊時 禮遇를 回復한다 하면 銀山 鐵壁이라 하겠스나 以若 住持의 萬能으로 房하나 變更이 야牛刀 割鶏이 고爲 長折枝이라 그 무엇이 難關인가 一時 事務當局을 向하야 哀訴를 하여 볼것이지 한다 허! 何不食肉米리요 現事務當局에 何算은 이리 할것이다

一、舊來의 困難이다
二、柴炭의 經濟이다
三、學人의 喧嘩가 잇을때는 近隣에 仲裁者이다
하고 또는 會經講師로 住持 椅子를 點領하였스나 祭甲移乙이라는 四字下에 나노 그 苦生을 적지스나 나노 또한 人屋上霜이라는 欲說이 傷心이요 莫說이 得宜로 다關東어는 和尚은 上板祖室에 近日 困境을 自釀하고 흥!

우리 정은 慈眼 視衆에 悲心 廣大인 善知識이 잇섯은 것이야 下板祖室로 되어 잇는 것을 보면은 「한다 筆者는 이에 對하야 마치 擔板漢의 瞻前不顧後와 酷似하다 고 快言하였노라」 거울날에는 慰安을 줌엇는 다하자 그 九夏 炎熱을 當하야 萬國如坐 洪爐中임도 不拘하고 一重壁을 隔한 炊事場에서 三時로 起烟하야 八熱에 鐵湯을 加함은 잇지하랴 그래도 佛祖의 慧命은 經典流通에 잇다 經典의 流通은 學人提接에 잇다 學人을 提接케 하자나 不可不講師의 便宜를 보와야 하겠다는 論은 善哉善哉가 잇다 고 假定하면 自然的 言聽對從이 되겠고 脫或不然 할지라도 잇는 구석이 잇는 지라 全鮮同感者를 通하야 同盟發起를 하여보겠스나 弱者의 武器 團結을 自家부터 理解解가 疑問일 뎡더러 大關節 相手方되는 彼邊으로 不重生佛重生金이라 金錢이 잇는 곳에 佛祖도 低頭할 笑한데다가 講師住持잇는 동안에 如干 講師가 온것이야 常分間일다 하기로 무엇 重大視할 것 잇나 하는 同時에 萬丈 氣焰이 當下 氷銷일 것이야 衣食住에 저그나 背景이 잇는 者는 兒初부터 이던 말을 보지안 할 것이요 設或 背景이 없다 할지라도 無腸公子가 아닌 以上에 「佛子야 菩薩摩訶薩」을 高唱하면 所到에 天供이 自至케 할 것이 지극하여 「序正流通」을 차질必 要가 잇겠는 가마는 無繩自縛으로 木石不接인 同感者를 爲하야 拈花室三字看板을 옮겨달라는 理想의 絶叫을 부르짖노라

東方佛教使命에 對하야

東京帝國大學 博士 鷺尾 順敬

佛敎는 印度 西藏 支那 朝鮮으로부터 日本에 傳來하야 東洋文化의 結晶이 되었다. 그리하야 燦然한 三千年의 歷史를 莊嚴할만 아니라 現今世界人類가 有한 最大의 宗教이며 最高의 哲學이며 最深의 文學이다. 그렇으므로 이제 大藏經의 研究는 世界의 史學이며 世界의 宗敎學者가 一大 研究의 對象으로 삼고 서로 다투어 가면서 各方面으로 研究에着手하리하는 狀況을 見聞케 된다. 早晚의 結果가 世界의 新文化建設에 一大 要素를 齎하게 되리라고 信하야 疑치 아니한다. 이제로부터 佛敎가 着世界의 的으로 興隆傳播할것은 明白한 事實이라고 하겠

다.
그러나 世界의 諸學者는 佛敎가 印度 西藏 支那 朝鮮에 傳播함은 알고 잇스나 아직 日本의 佛敎가 著大한 發達을 가지고 잇습은 아지 못한다. 西洋學者等이 佛敎에 關한 研究가 日本의 佛敎에 及

한은 불수가 없다 日本의 文化가 獨立하야 잇습은 겨우 아는 者가 잇다 하드레도 日本文化의 要素가 되여 잇는 日本의 佛敎가 獨立하야 잇습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못한다 하야 이와 같은 世界의 佛敎研究가 興起하드레도 日本의 佛敎는 遜히 이저 버리고 말 것이다
現今 西洋의 學者는 佛敎를 두가지로 大別하야 南方佛敎 北方佛敎로 區別한다 南方佛敎라 함은 印度 暹羅 錫蘭 비두마 등의 佛敎요 北方佛敎라 함은 西藏 니콜 支那 朝鮮 등의 佛敎이다 그래서 日本의 佛敎는 支那 朝鮮의 佛敎의 一部分으로 잇습은 事實이다 本來부터 日本의 佛敎는 支那 朝鮮으로부터 傳來한 것이다 그러나 日本에서 興隆한지 一千三百五十年에 及하야 著大한 發達을 이루어서 宗教로든지 哲學으로든지 文學으로든지 全然히 獨立한지라 印度 西藏이나 支那 朝鮮에서도 不